

Th. Mann의 초기 단편에 나타난 자전적인 요소

李 大 周

目 次

- | | |
|-----------------------|---------------------|
| I. 서 언 | 1. Friedemann |
| II. 작가의 성장 과정과 시대적 배경 | 2. Tonio Kröger |
| 1. 청소년기 | 3. Aschenbach |
| 2. 시대적 배경 (Décadence) | IV. 결 언 (Beseelung) |
| III. 자전적 요소의 표현 | |

I. 서 언

몇몇 작가들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갖가지 내용 즉,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요소를 작품속에 두드러지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작가들 중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는 Thomas Mann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Thomas Mann만큼 자신의 삶과 작품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놓고 있는 작가도 드물것 같다. 우리는 그의 작품을 대할 때 마다 다름아닌 Thomas Mann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그의 자전적인 요소는 후기작품으로 넘어 갈수록 더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 이것은 그가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주변사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풀어 나가 고자 하는 그의 독특한 창작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창작 태도에 관해서 Helmut Koopman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mmer wieder begegnen wir bei Thomas Mann Hinweisen auf Autobiographisches — scheint doch alle Kunst für ihn im Grunde genommen nichts anderes zu sein als eine geistig-sittliche Bemühung — um ein problematisches Ich.”²⁾

1) Helmut Koopmann: Die Entwicklung des intellektualen Romans bei Thomas Mann, Bonn 1980, S. 9

2) a. a. O. S. 8

(Thomas Mann에게서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되는 것은 자전적인 요소의 표현이다. — 그러나 모든 예술이란 그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문체적 자아에 대한 정신적 및 도덕적인 노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한결같이 나타나고 있는 예술가와 시민사회간의 갈등이라는 Thema도 따지고 보면 결국 그의 자전적인 요인의 한 표현인 것이다. 부유한 북독의 상업도시 Lübeck에서 손꼽히는 유서깊은 명문인 Mann가문이 한때 전성기를 맞다가 싫더니 곧바로 영락해버린 운명은 그에게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으며, 게다가 그가 자신의 혈액속에 양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반된 두 성향은 좀처럼 쉽게 풀 수 없는 과제를 그에게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젊은 Thomas Mann에게는 이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더 진지한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먼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의 해결을 보아야했던 것이다. Lübeck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의 추억, 가업으로 대를 이어오던 대 곡물상회, Mann 집안이 소유했던 대 저택, 그곳 정원과 그속에 들어있던 분수와 늙은 호도나무, 사업에서는 물론 공직에서도 크게 성공을 거둔 치밀하고 수완있는 아버지, 그리고 음악에 남다른 재질을 지닌 이색적인 어머니 등의 수많은 자전적인 소재들을 엮어서 그가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의 자세를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본 고찰의 목표는 Thomas Mann의 작품 속에 그의 자전적인 요소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러나 그의 전 작품을 분석하는 일은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보다더 집약적인 고찰을 하기 위해 초기의 세 단편으로 한정하였다. Text로 택한 단편은 그의 출세작이며 최초의 단편집의 표제작인 「Der kleine Herr Friedemann」, 그의 관심사인 예술가 문제가 가장 잘 다루어져 있는 「Tonio Kröger」, 그리고 가장 정선된 단어와 세련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Der Tod in Venedig」 등이다. 그리고 자전적 요소의 표현을 구명하는 과정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됨을 미리 밝혀둔다. 그것은 동일한 요소들이 여러 작품속에 함께 적용되어 있어서 그것을 작품별로 살펴 보자면 반복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이 세개의 작품에 표현된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를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주로 작가가 자란 청소년기는 어떠한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떤 것이었나를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II. 작가의 성장 과정과 시대적 배경

1. 청소년기

Thomas Mann은 1875년 북독의 상업도시 Lübeck에서 명문 부호의 두째 아들로 태어났다.

Mann 집안은 Lübeck에서 오래동안 부와 명예를 함께 누락은 유서 깊은 상인 가문이었다. 당시 그의 집에서는 대 곡물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Thomas Mann의 조부이자 시의회 의원의 증손인 Johann Siegmund Mann이 설립하여 곡물거래 및 그 위탁판매와 운송업까지 취급한 회사였다.³⁾ Thomas Mann의 아버지인 Thomas Johann Heinrich Mann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 회사를 승계하여 운영하였다. 그는 교양과 품위는 물론 분별력, 명예욕 그리고 극기를 지닌 근면한 인물이었다. 그는 사업경영에도 놀라운 수완을 발휘했지만 네델란드의 영사, 그리고 얼마 후에는 시참사회 의원이라는 공직도 맡아 일 할 만큼 대단한 활동가였다.

Thomas Mann의 어머니인 Julia da Silva-Bruhns는 여러가지 면에서 그의 아버지와는 아주 대조적인 분이었다. 포르투갈계의 피를 받은 브라질 태생인 그녀는 다양한 취미와 예술적인 재능을 지닌 아름다운 여자였다. 특히 천부적인 음악적 소양과 재질을 가진 그녀는 피아노 연주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레퍼터리의 가곡까지도 부를 정도였다. 그리고 그녀의 뛰어난 이야기 솜씨는 어린 Thomas Mann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다. Thomas Mann은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양친의 특질을 모두 한몸에 물려 받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 부터는 삶의 신지성을 물려 받았고 어머니로 부터는 예술적이고도 감상적인 성향을 물려 받았던 것이다.⁴⁾

Thomas Mann의 어린 시절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즐거운 나날들이었다. Mann 집안에서 소유하고 있던 두개의 저택들은 어린 Thomas Mann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그중 하나는 Mengstraße에 위치한 것으로 그의 할머니가 거주하였고, 또 하나는 Beckergrube에 신축하여 양친이 이사한 새 저택이었다. 그는 Beckergrube의 새집 보다는 Mengstraße의 옛집을 훨씬 더 좋아했다. Mengstraße의 조모택은 조상의 열이 담긴 조용한 저택으로 거기엔 아늑한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 안에는 늙은 호도나무가 한그루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름다운 분수가 있었다. 이곳은 어린 Thomas Mann에게는 아주 알맞은 안식처였다. 그는 이곳에 자주 들러 끝없는 몽상의 나래를 한껏 펼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분수와 늙은 호도나무는 북독의 드넓은 바다와 함께 그에게는 언제나 나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렇다고 Beckergrube의 양친택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양친택은 유서깊은 Mann 집안의 종가답게 위풍 당당한 것이었다. 다만 이곳에서 자주 열렸던 사교적인 모임이 그에게는 좀 번거로웠을 따름이다.

3) Hans Bürgin/Hans-Otto Mayer: Thomas Mann, Eine Chronik seines Lebens, Frankfurt a. M. 1974, S. 7 die Firma [Johann Siegmund Mann, Getreidehandlung, Kommissions- und Speditionsgeschäfte]

4) Vgl. a. a. O. S. 7f. "Frage ich mich nach der erblichen Herkunft meiner Analgen, so muß ich an Goethes berühmtes Verschen denken und feststellen, daß auch ich 'des Lebens ernstes Führen' vom Vater, die 'Frohnatur' aber, das ist die künstlerisch - sinnliche Richtung und - im weitesten Sinne des Wortes - die 'Lust zu fabulieren', von der Mutter habe."

그러나 어머니의 피아노 연주나 또는 아름다운 가곡들은 그에게 끝없는 몽상을 자극해 주었으며, 또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세계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상상력을 일깨워 주어 그로하여금 이야기를 쓰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이곳에서 그는 또 바이올린의 연주를 교습받기도 하며 자신의 음악적인 소양을 길렀던 것이다.

Thomas Mann 은 7살이 되는 1882년에 일명 「Kandidatenschule」라고 불리는 「Progymnasium von Dr. Bussenius」라는 사립 학교에 입학하여 1889년에 졸업했으며⁵⁾ 그해에 실업계 Gymnasium인 「Katharineum」에 입학하여 5년간 수학하였다.⁶⁾ 그는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⁷⁾ 학교생활은 따라서 그에게 유익한 소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가 학교 수업에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그가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몇가지의 문법 지식과, Baethcke 선생이 그에게 증개해준 Schiller 문학이었다.⁸⁾ 그리하여 그는 Schiller의 Ballade와 친숙해 졌으며 특히 「Don Carlos」는 어린 Thomas Mann 을 열광하게 만들어 놓았다. 학창시절에 그는 오래 동안 간직 할 만한 우정도 맺지 못했다. 나중에 문필가와 예술사가가 된 Otto Grautoff 와 맺은 우의만이 있을 뿐이다.⁹⁾ 방학때만 되면 그는 Trave 강 하류를 즐겨 찾곤 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드넓은 Ostsee 를 벗삼아 소년의 꿈을 키웠다. 그는 이때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n diesem Ort, in Travemünde, dem Ferienparadies, wo ich die unzweifelhaft glücklichsten Tage meines Lebens verbracht habe, “Tage und Wochen, deren tiefe Befriedigung und Wunschlosigkeit durch nichts Späteres in meinem Leben — zu übertreffen und in Vergessenheit zu bringen war — ”¹⁰⁾

(나는 이곳에서, 방학을 보내기에는 더없이 좋은 Trave 강 하류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내 생애중 가장 행복한 날들을 몇주일이고 보냈던 것이다. 그때의 깊은 만족감과 더 바랄 것이 없던 기분은 그후의 어떤 것도 이것을 능가하지 못했고 또 잊게할 수도 없었다.)

날로 번창하던 Mann 집안에는 마침내 엄청난 두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그것은 조모님과 부친의 사망이었다. 구세대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Thomas Mann 의 조모님은 1890년 겨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유서 깊은 Mann 집안의 상징이었던 Mengstraße 의 저택도 처분되었다. 다

5) a. a. O. S. 9

6) a. a. O. S. 10

7) Vgl. ebd. “Ich verachtete sie als Milieu, kritisierte die Manieren ihrer Machthaber und befand mich früh in einer Art literarischer Opposition gegen ihren Geist, ihre Disziplin, ihre Arbeitsmethoden.”

8) Klaus Schröter: Thomas Mann, Reinbeck bei Hamburg 1964, S. 20

9) Hans Bürgin/Hans-Otto Mayer, a. a. O. S. 10

10) zitiert nach ebd.

음해인 1891년 가을에는 상인으로서, 영사로서 그리고 시참사회 의원으로서 가문의 명예를 절정에까지 이끌어 올렸던 부친께서도 타계하셨던 것이다. 이 두분의 죽음은 어린 Thomas Mann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Sie hat in ihm den Gedanken an den Tod geweckt, der ihm der vertrauteste wurde, so, daß er, späterhin beglaubigt und erklärt durch die Metaphysik Schopenhauers, hinter allem stand, was Thomas Mann dachte und schrieb.”¹¹⁾

(이 죽음의 시간은 그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일깨워 주어, 그 죽음은 그에게 가장 친근한 것이 되어 그결과 Schopenhauer의 형이상학을 통해 확인되고 해명되어 Thomas Mann이 생각하고 처술한 모든 것의 배후에 자리잡게 되었다.)

마침내 가업인 곡물회사는 해산되었고 Beckergrube의 양친택도 Trave 강가의 곡물창고들과 함께 남의 손에 넘어갔다. 그동안 한번도 하강을 맛보지 못하고 오래동안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오던 유서깊은 Mann 집안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성문 앞의 한 별장에서 잠시 기거하던 어머니는 1892년 세 아이를 데리고 München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아직 학생인 Thomas Mann은 Lübeck에서 2년간을 더 머물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1894년에 가족을 따라 München으로 옮겨갔다. 그는 Lübeck에서 혼자 머무는 동안 친구인 Otto Grautoff와 함께 예술, 문학 그리고 철학을 위한 월간지인 「봄의 폭풍」¹²⁾을 발간하면서 그곳에 Paul Thomas라는 익명으로 기고하였다. 그의 글은 학교와 부르주아 세계에 대한 반항을 나타낸 것이고 편협하고 진부한 Lübeck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는 München에 이주하여 잠시 보험회사에 다녔다. 근무 시간에 그는 틈틈이 작품을 썼다. 그때 쓰여진 작품이 단편 「Gefallen」이었다. 이 작품이 발표되어 호평을 받자 그는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München공대에 청강생으로 입학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주로 인문과학 분야의 강의들을 많이 들었다. 이때 부터 그는 활기있는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쓴 작품들은 「Simpli-cissimus」나 또는 「Neue Deutsche Rundschau」등에 발표되어 호평을 받게 되었고, Berlin의 Fischer 출판사에서도 그의 작품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동안에 써놓은 단편 「Der kleine Herr Friedemann」을 비롯하여 「Der Tod」, 「Der Bajazzo」 등과 그의 몇편을 모아 「Der kleine Herr Friedemann」이라는 표제를 가진 최초의 단편집을 1898년에 발간하였다. 1900년에 발표된 최초의 장편 「Buddenbrooks」를 비롯하여 그의 왕성한 창작활동은 계속

11) Klaus Schröter a. a. O. S. 25

12) Hans Bürgin/Hans-Otto Mayer a. a. O. S. 13

해서 많은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Tonio Kröger」의 구상은 1899년에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완성되어 처음 발표된 것은 1903년 「Neue Deutsche Rundschau」지에 의해서였다. 그해에 그는 그것을 다른 몇개의 작품들과 함께 「Tristan」이라는 표제의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그가 「Der Tod in Venedig」를 쓰려고 마음먹은 것은 1911년이었다. 그는 그때 Italien 의 Brioni 섬에 들러 잠시 머무는 동안 작곡가인 Gustav Mahler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방문했던 Venedig의 인상을 결합하여 한 작품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Der Tod in Venedig」인 것이며 이 작품은 다음해인 1912년에 완성되어 München에서 Hans von Weber에 의해서 간행되었다.¹³⁾

2. 시대적 배경 (Décadence)

본 고찰의 Text로 삼고자하는 이 세계의 단편들이 발표된 시기의 시대적 특성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품들은 1900년을 전후하여 약 15년을 사이에 두고 발표된 것들이다. 이때는 세기말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독특한 상황을 지닌 시기였다. 세기말은 19세기의 구습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새길을 모색하는 20세기로 들어서는 분기점이었다. 따라서 이시기는 전통적인 옛것과 현대적인 새것과의 중간 위치라서 대립적인 갈등의 현상이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때였다.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후에 만연하기 시작한 퇴대로 되라는 식의 퇴폐적인 생활태도 즉, Décadence 풍조는 특히 구시대를 이끌어온 중추적 계층인 부르주아 사회를 썩먹고 있었으며, 이 Décadence 풍조는 특히 Schopenhauer의 염세주의, Nietzsche의 회의론, 그리고 Wagner의 죽음의 찬미등에 크게 고무를 받아 좀처럼 그 위세가 꺾이지를 않았던 것이다. Thomas Mann도 이 Décadence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Décadence에 젖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란, 심미주의에 빠진 나머지 삶에는 권태를 느껴 아주 소극적이고 죽음에 대하여는 강렬한 동경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나중에 Thomas Mann은 이 Décadence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지만 초기의 그의 작품에서는 이 요소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이 시절 그는 Hermann Bahr와 Paul Bourget를 통해, 전통적인 시민생활과 향락적인 생활태도 간의 대립,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차지하는 예술가의 존재 가치 문제라는 대 명제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본 고찰의 Text로 삼고자 하는 세 작품이 나올 때까지 Thoman Mann은 어떤 환경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그때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나를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그의 자전적인 요소들이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주인공 공별로 나누어 밝혀보고자 한다.

13) a. a. O. S. 40

Ⅲ. 자전적 요소의 표현

1. Friedemann

보모의 부주의로 불구자가 된 Friedemann은 처음부터 좀 특이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살아 갔다. 그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기피하고 내면의 세계로 파고들었다. 남들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되는 일도 자기에게는 원망과 고뇌만을 가져다 줄 뿐임을 그는 깨달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에게 알맞는 삶의 길을 걸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의 총족이란 마땅히 포기되어야 하며, 그저 동경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이런 체념을 통해서 얻은 자신의 독특한 삶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는 교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술적인 방면으로 교양을 쌓아 갔다. 그가 가꾼 예술적인 교양은 단순한 취미 정도를 넘어 상당한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활기찬 삶을 거부하고 *ästhetisch*한 삶의 향유만을 추구하던 그는 아름답고 활달한 Gerda를 만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지나치게 정열적으로 몰두한 나머지 파멸에 이르고 말았다.

Friedemann의 불구는 Thomas Mann의 불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Friedemann이 지닌 불구의 몸은 예술가가 현실에 대하여 갖는 무기력을 상징한다. 예술가가 현실에 대하여 갖는 무감각한 감정, 나약한 자신감, 그리고 무기력은 Thomas Mann이 다루는 제 1의 *Thematik*이었다.¹⁴⁾ 그는 예술이나 학문에 적합한 재질이란 병약하거나 신체적으로 허약한 체질에나 알맞는 그런 어떤 감수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은 무기력은 필연적으로 성공적인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Friedemann의 어린 시절은 바로 Thomas Mann의 어린 시절이다. Friedemann의 집이 위치한 “중간 크기가 될까 말까한 상업 도시”¹⁶⁾란 Thomas Mann이 자란 북독의 상업 도시인 Lübeck을 일컫는 것이다. Friedemann은 2층 주택에서 살았다.

“Durch die Haustür betrat man eine geräumige, mit Steinfliesen versehene Diele, von der eine Treppe mit weißgemaltem Holzgeländer in die Etagen hinaufführte. Die Tapeten des Wohnzimmers im ersten Stock zeigten verblichene Landschaften, und um den schweren Mahagonitisch mit der dunkelroten Plüschdecke standen steiflehnige Möbel.”¹⁷⁾

14) Hans Mayer: Thomas Mann, Frankfurt a. M. 1980, S. 33

15) Katharina Momsen: Gesellschaftskritik bei Fontane und Thomas Mann, Heidelberg 1973, S. 61

16) Thomas Mann: Der kleine Herr Friedemann, in: Die Erzählungen 1, Frankfurt a. M. 1975, S. 57

17) ebd.

(현관문을 들어서면 포석이 깔린 넓은 복도가 나르고, 이 복도에서 부티는 흰 칠을한 나무 난간이 윗층으로 통하고 있었다. 2층 거실 바닥의 용단은 퇴색한 갖가지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암홍색의 벨벳천이 덮인 욕중한 마호가니 탁자 주위에는 딱딱한 등받이 가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Hinter dem Hause war ein kleiner Garten, —. Ein alter, knorriger Walnußbaum stand dort, und in seinem Schatten saß der kleine Johannes oft auf einem niedrigen Holzstuhl und knackte Nüsse, —.”¹⁸⁾

(집뒤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었다.…… 거기에는 마디가 달린 늙은 호도나무가 한그루 서 있었는데, 어린 Johannes 는 그 그늘 밑에서 낮으막한 의자에 앉아 호두를 까곤 하였다.)

Friedemann이 살아온 이집은 Thomas Mann의 할머니가 사시던 Mengstraße의 저택을 묘사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Thomas Mann은 Beckergrube에 위치한 양친의 집보다 이집을 훨씬 더 좋아했다. 할머니의 집은 어린 Thomas Mann에게는 안성맞춤의 피난처였다. 그는 늙은 호도나무가 있는 한적한 정원에서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꿈을 키웠던 것이다. 이 호도나무와 그아래 분수는 Thomas Mann의 유년 시절의 상징으로서 그의 많은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Friedemann은 Thomas Mann처럼 한가한 시간이면 늘 이 정원에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지냈다.

“Oder beschäftigte er sich im Garten,”¹⁹⁾ (그는 정원에서 무엇인가에 몰두하곤 하였다.)

“Dann und wann hielt er das letztere leiseite, horchte auf das vergnügte Zwitschern von Sperlingen, die in dem alten Nußbaum saßen,”²⁰⁾

(이따금 그는 보던 책을 옆으로 밀쳐놓곤 늙은 호도나무에 앉은 참새들의 즐거운 지저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하였다.)

그 도시의 일류 명문가 그룹에 속하는 Friedemann 집안은 Lübeck의 유서깊은 명문 가문인 Mann 집안인 것이다. Friedemann 영사 부인은 바로 Thomas Mann의 어머니이다.

18) a. a. O. S. 58

19) ebd.

20) a. a. O. S. 61

“Die arme Frau hatte es noch vor der Geburt des Kindes erleben müssen, daß ihr Gatte, der niederländische Konsul, von einer ebenso plötzlichen wie heftigen Krankheit dahingerafft wurde.”²¹⁾

(이 불쌍한 부인은 아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델란드의 영사인 자기 남편이 갑작스러운 위독한 병으로 서거하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다.)

Thomas Mann의 아버지는 대 곡물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인 동시에 네델란드의 영사였으며 Lübeck의 시참사회 의원이었다. Thomas Mann의 아버지는 1891년 51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독혈병(Blutvergiftung)으로 세상을 떠났다.²²⁾

Friedemann의 어머니는 기회 있을때 마다 자기의 어린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Hier saß er oft in seiner Kindheit am Fenster, vor dem stets schöne Blumen prangten, auf einem kleinen Schemel zu den Füßen seiner Mutter und lauschte etwa, —, auf eine wundervolle Geschichte.”²³⁾

(그는 어릴적에 자주 이곳 꽃이 만발해 있는 창가에서 어머니의 발치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들곤 했다.)

이것은 Thomas Mann의 어머니가 뛰어난 솜씨로 어린 자녀들에게 Andersen의 동화나 또는 Fritz Reuter의 Erzählung을 재미있게 들려주어²⁴⁾ 어린 Thomas Mann으로 하여금 자기도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과 아주 똑 같다.

Friedemann은 7살에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에게는 학교생활이 단조로운 하루하루의 연속에 불과했다. 불구인 그는 주위의 친구들로 부터 소외당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남들과의 접촉을 멀리하고, 그들의 이해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을 혼자서 해나가는 데 곧 익숙해 졌다. 그는 넓은 교양과 고상한 취미를 통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이끌었다.

“Und er bildete sich. Er liebte die Musik und besuchte alle Konzerte, die etwa in der Stadt veranstaltet wurden. Er spielt allmählich, obgleich er sich ungemein merkwürdig dabei ausnahm, die Geige nicht übel und freute sich an jedem schönen und weichen Ton, der ihm gelang. Auch hatte er sich durch viele Lektüre mit der Zeit einen literarischen Geschmack angeeignet, den er wohl in der Stadt mit niemandem teilte.”²⁵⁾

21) a. a. O. S. 57

22) Hans Bürgin/Hans-Otto Mayer a. a. O. S. 11

23) Der kleine Herr Friedemann, S. 58

24) Hans Bürgin/Hans-Otto Mayer, a. a. O. S. 9

25) Der kleine Herr Friedemann, S. 60

(그는 교양을 쌓았다. 그는 음악을 좋아해 그 도시에서 개최되는 음악회가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의 모습은 좀 별났지만, 그래도 그는 점차로 곧잘 연주하게 되었으며, 자기가 켤 수 있었던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조에 기쁨을 느꼈다. 그는 또한 많은 독서를 통해서 그 도시에서는 어느 누구와도 겨룰 사람이 없을 정도의 문학적인 취미를 점차로 길러 나갔다.)

“Die Hauptneigung aber des Herrn Friedemann, seine eigentliche Leidenschaft, war das Theater. Er besaß ein ungemein starkes dramatisches Empfinden, und bei einer wuchtigen Bühnenwirkung, der Katastrophe eines Trauerspiels, konnte sein ganzer kleiner Körper ins Zittern geraten. Er hatte auf dem ersten Range des Stadttheaters einen bestimmten Platz, den er mit Regelmäßigkeit besuchte.”²⁶⁾

(그러나 Friedemann 씨의 가장 큰 취미, 열정을 다 쏟은 취미는 연극이었다. 그는 아주 강한 연극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어 비극의 Katastrophe 와 같은 강렬한 무대 효과를 볼때면 그의 작은 몸이 떨기까지 했다. 그는 시립 극장의 2층 맨 앞줄에 고정 좌석을 가지고 그 좌석을 규칙적으로 찾았다.)

Thomas Mann 도 7 살에 학교에 들어갔으나 그도 Friedemann 처럼 학교 생활이 재미 없었다. 그는 동급생과도 별로 어울리지 않았다. Thomas Mann 은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바이올린의 연주법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음악 교육을 받았다. Thomas Mann 은 문학이외에 연극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연극 모임에도 가입하여 토론회에 자주 참석하였다. 1895년 6월 Ernst von Wolzogen 의 지도를 받는 <der Akademisch-Dramatische Verein>이 Ibsen 의 물오리(Wildente)라는 극을 독일에서 처음 공연 했을때 그는 돈 많은 상인 Werle 역을 맡았었다.²⁷⁾ 1892년 Thomas Mann 은 Lübeck 의 시립 극장에서 Wagner 의 오페라를 처음 감상하게 되었다. 당시 그 극장에서는 테너 가수인 Emil Gerhäuser 가 Wagner 의 「Tanhäuser」나 「Lohengrin」 등의 주역을 맡아 노래부르고 있었다.²⁸⁾ 「Lohengrin」은 그때 Thomas Mann 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Wagner 음악에 경도하게 되었고 Wagner 의 작곡 기법은 마침내 Thomas Mann 의 창작 기법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Friedemann 이 시립 극장에서 관람한 <Lohengrin>²⁹⁾은 Thomas Mann 의 이러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26) a. a. O. S. 61

27) Hans Bürgin/Hans-Otto Mayer, a. a. O. S. 16

28) a. a. O. S. 12

29) Der kleine Herr Friedemann, S. 65

2. Tonio Kröger

이곳에서는 Tonio Kröger의 내적 발전이 단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금발에 눈이 파란 Hans와 Inge를 무척 동경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들로 부터 받은 반응이란 아주 냉담한 것이었다. 차차 예술가(시인)로 변모해 가고 있는 그의 내적 세계는 왕성한 정신으로 가다듬어 졌다. 그리하여 그는 우둔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허한 행동을 경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주위 세계와의 결합을 외롭게 회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남쪽 나라 이태리에 가서 정신과 언어를 연마하여 예술가로 성숙했다. 어느날 그는 Lisaweta의 화실로 찾아가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라기 보다는 차라리 Tonio Kröger의 독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알맞을 그런 대화에서 그는 예술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놓고 있다. 따사로운 감정이 예술적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류이며,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려면 냉정하고 세련된 정신의 부야경만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유혹적인 평범한 삶에 대한 관심을 저버린 예술가가 과연 참된 예술가일까 하는 회의도 나타낸다. 그에게는 문학(예술)이란 천직이 아니라 저주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예술과 소박한 삶을 조화롭게 공유할 수 없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북쪽의 Lübeck와 Dänemark를 향해 떠났다. 남쪽 지방이 예술을 상징한다면 북쪽 지방은 활기찬 삶을 대변하는 곳이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해 마침내 합일에 이르는 길을 찾아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 생기 발랄한 것, 그리고 평범한 것에 대한 속인다운 사랑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야말로 평범한 문사(Literat)를 참된 시인(Dichter)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Tonio Kröger가 이렇게 예술과 삶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모습은 바로 Thomas Mann 자신의 반영인 것이다. 당시의 Thomas Mann에게는 한편으로는 예술과 정신간의 긴장, 또 한편으로는 정신과 삶간의 긴장이라는 문제와 그 해결이 중심 과제였다.³⁰⁾ 이 작품은 젊은 Thomas Mann의 자서전이라고 할만큼 그의 자전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

“Aber Tonio war Konsul Krögers Sohn, dessen Getreidesäcke mit dem breiten schwarzen Firmen-druck man Tag für Tag durch die Straßen Kutschieren sah; und seiner Vorfahren großes altes Haus war das herrschaftlichste der ganzen Satdt—.”³¹⁾

30) Walter A. Berendsohn: Thomas Mann, Künstler und Kämpfer in bewegter Zeit, Lübeck 1965, S. 42

31) Thomas Mann; Tonio Kröger, in: die Erzählungen 1, Frankfurt a. M. 1975, S. 205

(그러나 Tonio 는 영사 Kröger 씨의 아들이었으며, 거리에서는 넓고 검은 상호가 찍힌 그 집 안의 곡물 자루들이 매일 실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크고 오래된 가옥은 시내 전체에서 가장 당당한 것이었다.)

Thomas Mann 의 집에서는 가업으로 대를 이어온 대 곡물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Thomas Mann 의 아버지는 네델란드 영사와 시참사회 의원이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었다. Mengstraße 에 있는 조상이 물려준 집이나 Beckergrube 의 새집도 아주 당당한 것이었다. Tonio Kröger 는 Thomas Mann 이 그랬듯이 바이올린을 곧잘 연주하였다.

“Und diese Beschäftigung bereitete ihm eine ganz ähnliche Genugtuung, wie wenn er mit seiner Geige (denn er spielte die Geige) in seinem Zimmer umherging und die Töne, so weich, wie er sie nur hervorzubringen vermochte, in das Plätschern des Springstrahles hinein erklingen ließ, der drunten im Garten unter den Zweigen des alten Walnußbaumes tänzelnd emporstieg —”³²⁾

(이런 일은 그가 자신의 바이올린을 가지고(왜냐하면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했기 때문에) 방 안을 왔다 갔다하며, 저아래 정원의 늙은 호도나무 가지 아래에서 춤추며 솟아오르는 분수의 물소리 안으로 가능한한 부드러운 소리를 울려져지게 할 때와 똑같이 그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Thomas Mann 은 어렸을 때 호도나무가 있는 정원을 무척 좋아했다. 그가 또 좋아한 것은 드넓은 바다였다. 그는 학창시절 방학때가 되면 넓은 Ostsee 를 볼 수 있는 Trave 강 하류를 즐겨 찾곤 하였다. Tonio Kröger 에게도 분수와 호도나무 그리고 Ostsee 는 젊은 날의 영원한 친구였다.

“Der Springbrunnen, der alte Walnußbaum, seine Geige und in der Ferne das Meer, die Ostsee, deren sommerliche Träume er in den Ferien belauschen durfte, diese Dinge waren es, die er liebte, mit denen er sich gleichsam umstellte, und zwischen denen sich sein inneres Leben abspielte.”³³⁾

(분수, 늙은 호도나무, 그의 바이올린 그리고 휴가때가 되면 아름다운 꿈을 엿들 수 있던 먼 곳의 바다, 즉 Ostsee, 이런 것들이 그가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들로써 자기 마음을 전환하고 그 속에서 그의 내적 삶이 펼쳐졌던 것이다.)

Tonio Kröger 가 민중 도서관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옛집을 찾았을 때, 그 늙은 호도나무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과거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를 반겨주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늙은

32) a. a. O. S. 207

33) ebd.

호도나무가 마치 영원한 생명수(Lebensbaum)같이 느껴졌던 것이다.

Tonio Kröger의 학교생활은 충실하지 못했다. 그가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급우들이나 선생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그는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그는 그들의 이러한 저속한 태도를 경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시를 쓰는 일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Thomas Mann의 학교 생활도 Tonio Kröger와 마찬가지로였다. Thomas Mann은 실업계 Gymnasium에 다닐때 학교를 혐오하였다. 그는 학교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는 선생들의 태도를 비판했고, 학교의 규율이나 교육 방법 등에 대하여 문학적인 방면에 골몰함으로써 은근히 저항하였다.³⁴⁾ Thomas Mann이 문학에 손을 댄 것은 일찍 부터였다. 그의 최초의 문학적인 試作品은 미숙한 Drama였다. 그는 이 작품을 어린 동생들과 함께 양친 앞에서 상연을 하였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바치는 몇편의 시였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Tonio Kröger」에서 Hans Hansen으로 나타난 것이다.³⁵⁾ Tonio Kröger가 친구인 Hans에게 읽어보라고 강권하고 있는 「Don Carlos」는 Thomas Mann이 실업계 Gymnasium에서 Baethcke 선생의 소개로 그 작품을 읽고 느낀 감동³⁶⁾이 옮겨 표현된 것이다.

Kröger 집안의 묘사는 바로 Mann 집안의 묘사이다.

“Die alte Familie der Kröger war nach und nach in einen Zustand des Abbröckelns und der Zersetzung geraten, und die Leute hatten Grund, Tonio Krögers eigenes Sein und Wesen ebenfalls zu den Merkmalen dieses Zustandes zu rechnen. Seines Vaters Mutter war gestorben, das Haupt des Geschlechts, und nicht lange darauf, so folgte sein Vater, der lange, sinnende, sorgfältig sckleidete Herr mit der Feldblume im Knopfloch, ihr im Tode nach. Das große Kröger'sche Haus stand mit-samt seiner würdigen Geschichte zum Verkaufe, und die Firma ward ausgelöschet.”³⁷⁾

(유서값은 Kröger 집안은 점차로 몰락과 와해 상태로 접어들었으며 Tonio Kröger라는 인물이 생겨난 것도 이런 상태에 대한 징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근거 있는 것이었다. 가문의 옷 어른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곧이어 키가 크고 사려 깊고 세심한 옷차림에 들꽃을 단추 구멍에 꽂고 다니시던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다. Kröger 집안의 소유인 대 저택은 품위있는 역사와 함께 매각 되었으며 회사는 해산되었다.)

Thomas Mann의 조모가 돌아가신 후 1년만에 그의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Mann 가문의 소유였던 대 저택도 매각되고 곡물회사도 해산되어 유서값은 Mann 집안은 일시에 몰락해버리고 말

34) Hans Bürgin/Hans-Otto Mayer, a. a. O. S. 10

35) a. a. O. S. 10f.

36) Klaus Schröter, a. a. O. S. 21

37) Tonio Kröger, a. a. O. S. 218f.

있던 것이다.

피아노를 잘치고 노래도 잘부르던 이색적이고 정열적인 Thomas Mann의 어머니는 “피아노와 만도린을 기막히게 잘연주하던 아름답고 정열적인”³⁸⁾ Tonio Kröger의 어머니로 묘사되었다.

Tonio Kröger가 옛집을 방문하여 아버지의 임종을 회상하는 장면도 Thomas Mann이 아버지의 임종때 보고 느꼈던 것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Seines Vaters Mutter war dort gestorben, so alt sie war, unter schweren Kämpfen, denn sie war eine genußfrohe WeltDame und hing am Leben. Und später hatte dort sein Vater selbst den letzten Seufzer getan, der lange, korrekte, ein wenig wehmütige und nachdenkliche Herr mit der Feldblume im Knopfloch—Tonio hatte am Fußende seines Sterbebettes gewesen, mit heißen Augen, ehrlich und gänzlich hingegeben an ein stummes und starkes Gefühl, an Liebe und Schmerz. Und auch seine Mutter hatte am Lager gekniet, seine schöne, feurige Mutter, ganz aufgelöst in heißen Tränen.”³⁹⁾

(그의 할머니는 고령으로 힘든 투병을 계속하다 저곳에서 돌아가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놀기 좋아하는 사교계의 부인이라 삶에 미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후에 키가 크고 정확하며 약간은 우울하면서도 명상적인 그러면서도 단추구멍에 들쭉을 꿰고 다니던 신사인 그의 아버지도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Tonio는 눈시울을 적시며 조용하고 강렬한 감정과 애정과 고통에 자신을 통채로 내맡기면서 임종하시는 침상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아름답고 정열적인 그의 어머니도 무릎을 꿇고 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Tonio Kröger]의 제 2 Kapitel은 Husteede 영사 부인의 Salon에서 있었던 무도 강습회 이야기로 꾸며져 있는데 이런 무도 강습회도 Thomas Mann에게 있었던 일이다. 그는 1889년 겨울 자기 여동생인 Julia와 함께 Hamburg극장의 주역 무용수인 Rudolf Knoll 씨가 지도하는 무도 강습회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⁴⁰⁾ 따라서 작품속에서 춤을 지도하는 사범의 성이 Knaak인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는 해산되고 살던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자 Tonio Kröger는 예술가의 길을 걷기 위해 남쪽 나라로 향했다. 그는 그렇게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면서도 마음이 무겁지가 않았다.

“Und er verließ die winklige Heimatstadt, um deren Giebel der feuchte Wind piff, verließ den Springbrunnen und den alten Walnußbaum im Garten, die Vertrauten seiner Jugend, verließ auch

38) a. a. O. S. 219

39) Tonio Kröger, S. 237

40) Hans Bürger/Hans-Otto Mayer, a. a. O. S. 11

das Meer, das er so sehr liebte, und empfand keinen Schmerz dabei. Denn er war groß und klug geworden, hatte begriffen, was für eine Bewandnis es mit ihm hatte, und war voller Spott für das plumpe und niedrige Dasein, das ihn so lange in seiner Mitte gehalten hatte.”⁴¹⁾

(그래서 그는 박풍건물 주위에 축축한 바람이 불어대는 비좁은 고향도시를 떠났다. 그는 또 정원속의 분수와 늙은 호도나무, 어린 시절에 정들었던 사람들을 버리고 떠났으며,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바다마저 버리고 떠났으나 결코 괴로움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라서 현명해졌으며 자신이 처해있는 사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를 그렇게도 오래동안 붙잡아 매두었던 우둔하고 저속한 생활에 대하여 조소를 가득히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890년에 있었던 자기네 곡물회사의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지켜본 Thomas Mann은 답답한 가슴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자기는 자신에게 말없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식의 후계자는 되지 못할 것이고, 또 자기는 이 유서깊은 회사를 장래까지 더 이끌어가지 못할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⁴²⁾ 그는 자기네 회사가 해산되고 자기가 살던 집이 팔리게 되었을때 그것을 슬퍼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것이 자기를 불안으로 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 느꼈다.⁴³⁾ 고향을 떠나기 직전 그는 자신의 고향인 Lübeck이 편협하고 진부하다고 공격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Thomas Mann은 마침내 Tonio Kröger가 남쪽 나라로 떠나듯, 먼저 이사한 가족을 따라 München으로 갔다.

예술의 고향인 남쪽 나라에서 Tonio Kröger의 예술세계는 풍성히 성숙하였다. 그는 오로지 창작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그가 지닌 예술가적 태도는 너무 진지했다.

“Er arbeitete nicht wie jemand, der arbeitet, um zu leben, sondern wie einer, der nichts will als arbeiten, weil er sich als lebendigen Menschen für nichts achtet, nur als Schaffner in Betracht zu kommen wünscht”⁴⁴⁾

(그는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처럼 일을 하지않고 일하는 것이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일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로지 자신은 창조자로서만 보아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Thomas Mann 자신의 바램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자기 독자와 자기 부인 Kattja Pringsheim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는 수년 동안 인간으로서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41) Tonio Kröger, S. 219

42) Hans Bürgin/Hans-Otto Mayer, a. a. O. S. 11

43) Klaus Schröter, a. a. O. S. 27

44) Tonio Kröger, S. 220

로 생각해 왔으며 오로지 자신을 예술가로서만 보아주기를 바랬었다는 고백을 여러차례 했던 것이다.⁴⁵⁾

명성을 얻은 예술가 Tonio Kröger는 그러나 소박한 삶에 대한 동경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건실한 삶의 피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예술과 삶간의 조화를 찾기 위해 삶을 상징하는 북쪽 지방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고향 Lübeck에 들러 자신의 옛집도 찾아 보았다. 자신의 집은 모두가 다 변해 있었다. 활기에 넘치던 옛날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고요와 적막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Hotel에서 범죄자의 혐의까지 받기도 했다. 여행의 종착지인 Aalsgard에서 그는 시공을 초월한 Hans와 Inge를 또한번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Helsingör에서 온 일단의 소풍객 틈에 끼어 있었다. 그들이 벌린 무도회는 옛날 그가 어렸을때 가졌던 무도회의 재판이었다. 영원 회귀의 법칙에 따라 무도회에서 재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는 관심있게 주시하며 자신을 비쳐보았다. 마침내 그는 예술과 삶의 합일에 이르는 길을 찾아냈다. 그는 Lisaweta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다.

“Ich bewundere die Stolzen und Kalten, die auf den Pfaden der großen, der dämonischen Schönheit abenteuernd und den ‘Menschen’ verachten, —aber ich beneide sie nicht. Denn wenn irgend etwas imstande ist, aus einem Literaten einen Dichter zu machen, so ist es diese meine Bürgerliebe zum Menschlichen, Lebendigen und Gewöhnlichen. Alle Wärme, alle Güte, aller Humor kommt aus ihr, und fast will mir scheinen, als sei sie jene Liebe selbst, von der geschrieben steht, daß einer mit Menschen-und Engelszungen reden könne und ohne sie doch nur ein tönendes Erz und eine klingende Schelle sei.”⁴⁶⁾

(위대하고 dämonisch 한 美의 오솔길에서 모험하며 인간을 멸시하는 오만하고 냉정한 사람들
나는 경탄해 마지 않습니다. — 그러나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는 않는다오. 왜냐하면 글씨나 쓴
다는 사람들을 참된 시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것, 생기 발
랄한 것 그리고 평범한 것에 대한 나의 시민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갖 온정, 온갖 자
비, 온갖 Humor 등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이런 사랑이, 인간의 혀와 천사
의 혀로 말할 수는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쇠붙이나 울리는 종에 불과하리라고 적혀 있
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45) Vgl. Klaus Schröter, a. a. O. S. 68 In Briefen an seine Leser und sogar noch an seine Braut Katja Pringsheim wiederholt Thomas Mann Bekenntnisse wie dieses, daß er sich Jahre lang als Menschen für nichts geachtet und nur als Künstler habe in Betracht kommen wollen.

46) Tonio Kröger, S. 255f.

das Meer, das er so sehr liebte, und empfand keinen Schmerz dabei. Denn er war groß und klug geworden, hatte begriffen, was für eine Bewandnis es mit ihm hatte, und war voller Spott für das plumpe und niedrige Dasein, das ihn so lange in seiner Mitte gehalten hatte.”⁴¹⁾

(그래서 그는 박풍건물 주위에 축축한 바람이 불어대는 비좁은 고향도시를 떠났다. 그는 또 정원속의 분수와 늙은 호도나무, 어린 시절에 정들었던 사람들을 버리고 떠났으며,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바다마저 버리고 떠났으나 결코 괴로움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라서 현명해졌으며 자신이 처해있는 사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를 그렇게도 오래동안 붙잡아 매두었던 우둔하고 저속한 생활에 대하여 조소를 가득히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890 년에 있었던 자기네 곡물회사의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지켜본 Thomas Mann은 답답한 가슴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자기는 자신에게 말없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식의 후계자는 되지 못할 것이고, 또 자기는 이 유서깊은 회사를 장래까지 더 이끌어가지 못할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⁴²⁾ 그는 자기네 회사가 해산되고 자기가 살던 집이 팔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슬퍼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것이 자기를 불안으로 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 느꼈다.⁴³⁾ 고향을 떠나기 직전 그는 자신의 고향인 Lübeck 이 편협하고 진부하다고 공격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Thomas Mann 은 마침내 Tonio Kröger 가 남쪽 나라로 떠나듯, 먼저 이사한 가족을 따라 München 으로 갔다.

예술의 고향인 남쪽 나라에서 Tonio Kröger 의 예술세계는 풍성히 성숙하였다. 그는 오로지 창작에만 몰두했던 것이다. 그가 지닌 예술가적 태도는 너무 진지했다.

“Er arbeitete nicht wie jemand, der arbeitet, um zu leben, sondern wie einer, der nichts will als arbeiten, weil er sich als lebendigen Menschen für nichts achtet, nur als Schaffner in Betracht zu kommen wünscht”⁴⁴⁾

(그는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처럼 일을 하지않고 일하는 것이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일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로지 자신은 창조자로서만 보아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Thomas Mann 자신의 바램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자기 독자와 자기 부인 Kaja Pringsheim 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는 수년 동안 인간으로서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41) Tonio Kröger, S. 219

42) Hans Bürgin/Hans-Otto Mayer, a. a. O. S. 11

43) Klaus Schröter, a. a. O. S. 27

44) Tonio Kröger, S. 220

로 생각해 왔으며 오로지 자신을 예술가로서만 보아주기를 바랬었다는 고백을 여러차례 했던 것이다.⁴⁵⁾

명성을 얻은 예술가 Tonio Kröger는 그러나 소박한 삶에 대한 동경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건실한 삶의 피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예술과 삶간의 조화를 찾기 위해 삶을 상징하는 북쪽 지방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고향 Lübeck에 들러 자신의 옛집도 찾아 보았다. 자신의 집은 모두가 다 변해 있었다. 활기에 넘치던 옛날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고요와 적막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Hotel에서 범죄자의 혐의까지 받기도 했다. 여행의 종착지인 Aalsgard에서 그는 시공을 초월한 Hans와 Inge를 또한번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Helsingör에서 온 일단의 소풍객 틈에 끼어 있었다. 그들이 벌린 무도회는 옛날 그가 어렸을때 가졌던 무도회의 재판이었다. 영원 회귀의 법칙에 따라 무도회에서 재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는 관심있게 주시하며 자신을 비쳐보았다. 마침내 그는 예술과 삶의 합일에 이르는 길을 찾아냈다. 그는 Lisaweta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다.

“Ich bewundere die Stolzen und Kalten, die auf den Pfaden der großen, der dämonischen Schönheit abenteuernd und den ‘Menschen’ verachten, —aber ich beneide sie nicht. Denn wenn irgend etwas imstande ist, aus einem Literaten einen Dichter zu machen, so ist es diese meine Bürgerliebe zum Menschlichen, Lebendigen und Gewöhnlichen. Alle Wärme, alle Güte, aller Humor kommt aus ihr, und fast will mir scheinen, als sei sie jene Liebe selbst, von der geschrieben steht, daß einer mit Menschen-und Engelszungen reden könne und ohne sie doch nur ein tönendes Erz und eine klingende Schelle sei.”⁴⁶⁾

(위대하고 dämonisch한 美의 오솔길에서 모험하며 인간을 멸시하는 오만하고 냉정한 사람들나는 경탄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는 않는다오. 왜냐하면 글이나 쓴다는 사람들을 참된 시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것, 생기 발랄한 것 그리고 평범한 것에 대한 나의 시민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갖 온정, 온갖 자비, 온갖 Humor 등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이런 사랑이, 인간의 혀와 천사의 혀로 말할 수는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쇠붙이나 울리는 종에 불과하리라고 적혀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45) Vgl. Klaus Schröter, a. a. O. S. 68 In Briefen an seine Leser und sogar noch an seine Braut Katja Pringsheim wiederholt Thomas Mann Bekenntnisse wie dieses, daß er sich Jahre lang als Menschen für nichts geachtet und nur als Künstler habe in Betracht kommen wollen.

46) Tonio Kröger, S. 255f.

합일애의 길을 찾기 위해 북쪽 지방을 방문한 Tonio Kröger의 여행은 Thomas Mann이 1899년 9월에 Dänemark로 갔던 여행의 이야기가 옮겨진 것이다. 그는 그때 잠시 자기 고향 Lübeck에 들렀었다. 그는 그곳 Stadt Hamburg라는 Hotel에 머물고 있었으며, 이 Hotel에서 그는 고등 사기꾼의 혐의를 받고 체포될뻔한 일화도 남겼었다. 그는 그후 Aalsgard에서 9일간 머물면서 이런 일들을 소재로하여 「Tonio Kröger」를 구상했던 것이다.⁴⁷⁾

3. Aschenbach

「Der Tod in Venedig」는 짜임새로 보나 감고 닦아 만든 세련된 문장으로 보나 Thomas Mann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여기서도 그는 여전히 예술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Aschenbach에게서 우리는 Tonio Kröger의 늙은 모습을 보는듯 하다. Aschenbach는 평생 동안 의지와 극기로서 창작 생활에만 몰두한 나머지 마침내는 대가의 경지에까지 도달했다. 그는 자신이 획득한 명성을 품위있게 관리할줄 아는 고결한 문필가였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즉 창작에만 지나치게 충실하다 보니 다채로운 외부 생활의 애호가자가 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산보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모습에서 멀리 떠나보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의무감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 자유로와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짐을 벗어 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갈망이었다. Aschenbach는 마침내 먼 남쪽 예술의 도시 Venedig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에도 완전무결한 美의 소유자인 폴란드 소년 Tadzio를 만나 그 아름다움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의지와 극기로 품위를 지녀왔던 그는 감각적인 美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견장을 수 없는 자기 혼란과 품위 상실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는 이 도취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곳에서는 콜레라가 만연되어 매우 위험했음에도 그는 끝내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마침내는 파멸하고 말았다.

「Der Tod in Venedig」는 Thomas Mann의 개인적인 특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Buddenbrooks」를 능가하는 작품이다.⁴⁸⁾ 이곳에서도 우리는 Thomas Mann과 주인공인 Aschenbach간의 동일성을 많은 곳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먼저 우리는 Aschenbach의 출신 성분에 관한 묘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Gustav Aschenbach also war zu L., einer Kreisstadt der Provinz Schlesien, als Sohn eines höheren Justizbeamten geboren. Seine Vorfahren waren Offiziere, Richter, Verwaltungsfunktionäre

47) Hans Bürgin/Hans-Otto Mayer, a. a. O. S. 20

48) Helmut Koopmann: Thomas Mann, Konstanten seines literarischen Werks, Göttingen 1975, S. 32

gewesen, Männer, die im Dienste des Königs, des Staates ihr straffes, anständig karges Leben geführt hatten....rasches, sinnliches Blut war der Familie in der vorigen Generation durch die Mutter des Dichters, Tochter eines böhmischen Kapellmeisters, zugekommen....Die Vermählung dienstlich nüchterner Gewissenhaftigkeit mit dunkleren, feurigeren Impulsen ließ einen Künstler und diesen besonderen Künstler erstehen."⁴⁹⁾

(Gustav Aschenbach는 Schlesien 지방의 행정 도시인 L. 시에서 비교적 높은 어느 사법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조상들은 장교, 판사, 행정관들이었고 왕이나 국가에 봉사하면서 엄격하고 품위있는 그러면서도 빈틈없는 삶을 이끌어온 사람들이었다...., 성급하고 육감적인 혈통은 보헤미아 악장의 딸인 그 작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먼저 세대에 그 가족에게 도입되었다...., 관료적으로 냉정한 고지식함과 어둡고 정열적인 충동의 결합이 한 예술가들, 이 독특한 예술가들 생겨나게 했던 것이다.)

예술가 Aschenbach의 진지성과 철저성은 곧 Thomas Mann의 자세를 일컫는 것이다. Thomas Mann은 엄격하고 철저한 규범 속에서 창작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는 평생토록 이런 규범을 깨뜨리지 않고 계속했다. 그는 언제나 오전 시간을 창작을 위해 썼으며, 창작에 앞서 그는 늘 필요한 재료를 수집하여 관찰하고 연구하는 진지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는 창작을 위해 시간을 효과적으로 분할하여 활용했으며 그 이행 또한 철저했다. 이와같은 그의 태도를 Aschenbach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Überreizt von der schwierigen und gefährlichen, eben jetzt eine höchste Behutsamkeit, Umsicht, Eindringlichkeit und Genauigkeit des Willens erfordernden Arbeit der Vormittagsstunden,”⁵⁰⁾

(이제 방금 그는 극도의 침착성, 신중성 그리고 의지의 철저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어렵고도 위험스러운 오전 시간의 작업으로 인해서 너무 흥분해 있었다.)

“Da er also die Aufgaben, mit denen sein Talent ihn belud, auf zarten Schultern tragen und weit gehen wollte, so bedurfte er höflich der Zucht, —und Zucht war ja zum Glücke sein eingeborenes Erbteil von väterlicher Seite. Mit vierzig, mit fünfzig Jahren, wie schon in einem Alter, wo andere verschwenden, begann er seinen Tag beizeiten mit Stürzen kalten Wassers über Brust und Rücken und brachte dann, ein Paar hoher Wachskerzen in silbernen Leuchtern zu Häupten des Manuskripts, die Kräfte, die er im Schlaf gesammelt, in zwei oder drei inbrünstig gewissenhaften Morgenstunden der Kunst zum Opfer dar.”⁵¹⁾

49) Thomas Mann: Der Tod in Venedig, in: Die Erzählungen, 1, Frankfurt a. M. 1975, S. 342f.

50) a. a. O. S. 338

51) a. a. O. S. 344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재능이 자기에겐 부과해준 과업들을 연약한 어깨에 짊어지고 먼길을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극도의 자제가 필요했다. — 자제는 다행이도 아버지쪽으로 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유산이었던 것이다. 남들이 낭비하며, 재미를 보며, 계획의 실천을 연기하는 그런 연령인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도 그는 일찌감치 차거운 물을 가슴과 등에 끼얹는 일로 부터 하루의 일과를 시작 하였으며, 그다음에는 은촛대에 한쌍의 긴 초에 불을 붙여 수북히 쌓인 원고더미 곁에 가서다 놓고는 그가 잠자면서 모아두었던 힘을 두 세시간의 아침 시간에 열심히 그리고 양심적으로 예술의 제물로 바쳤다.)

Aschenbach와 Thomas Mann의 동일성은 Aschenbach가 썼다는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Aschenbach의 작품들은 바로 Thomas Mann의 작품이다. Aschenbach의 “Prosa-Epopöe vom Leben Friedrichs von Preußen”⁵²⁾은 Thomas Mann이 1906년에 착수한 Friedrich대왕에 대한 역사 소설이다. Thomas Mann은 이 Friedrich-Roman에 대한 계획을 1905년 자기형인 Heinrich Mann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다.⁵³⁾ Aschenbach의 논문인 「Geist und Kunst」는 Thomas Mann이 집약적으로 계획은 했으나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한 것이었다.⁵⁴⁾ “하녀의 그림자 속에 많은 인간의 운명을 모아놓고 많은 인물을 등장시켜 오래동안 열심히 제작한 Maja라는 장편 소설”⁵⁵⁾은 Thomas Mann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는 1901년과 1902년 사이에 「Tonio Kröger」를 집필하면서 「Die Geliebten」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그는 이 Novelle로 부터 Gesellschaftsroman인 「Maja」의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래동안 담보상태로 있다가 훨씬 뒤에 「Doktor Faustus」 속에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⁵⁶⁾ 그밖의 「Ein Elender」역시 Thomas Mann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Thomas Mann의 작품이 그대로 Aschenbach의 작품으로 옮겨진 것은, Aschenbach가 지니고 있는 제 문제가 다름 아닌 바로 Thomas Mann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Aschenbach를 죽음으로 몰고간 Venedig에 대한 사실적 묘사는 Thomas Mann이 여러 차례 그곳을 방문했던 체험의 소산이다. 예술의 도시이며 바다의 도시인 Venedig. 그것은 아침 잘하고 신용할 수 없는 미녀와도 같은 도시이며 동화적이면서도 동시에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함정같은 도시이다. Nietzsche는 Venedig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금단의 장소로 간주했다.⁵⁷⁾ 그 도시는 Wagner가 죽음을 맞은 곳이기도 하다. Thomas Mann도 Venedig를 사랑했다. 그가 처

52) a. a. O. S. 342

53) Helmut Koopmann; Thomas Mann, Konstanten seines literarischen Werks, S. 33

54) a. a. O. S. 32

55) Der Tod in Venedig, S. 342

56) Herbert Lehnert: Die Künstler-Bürger-Brüder, in: Thomas Mann und die Tradition, hrsg. von Peter Pütz, Frankfurt a. M. 1971, S. 37

57) Benno von Wiese: Die Deutsche Novelle Bd. 1, Düsseldorf 1977, S. 306

음 Venedig 를 방문한 것은 1896 년이었다. 그는 그때 그곳에서 3 주 정도 체류했다.⁵⁸⁾ 1901 년 그는 다시 Florenz 와 Venedig 로 여행 하였으며,⁵⁹⁾ 1907 년 5 월에도 그는 Venedig 와 Lido 를 다녀온 일이 있다.⁶⁰⁾ 1911 년 5 월 중순에 그는 Istrien 앞에 있는 섬 Brioni 에 머물고 있었다. 거기서 그는 작곡가 Gustav Mahler 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⁶¹⁾ Brioni 섬이 오래 머무를 곳이 못된다고 생각한 그는 바로 Venedig 근교의 Lido 로 옮겨 <Hotel des Bains> 에 숙소를 정했다.⁶²⁾ Gustav Mahler 의 죽음은 그때 Thomas Mann 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가 작곡가인 Mahler 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10 년 9 월이었다. 그는 Mahler 의 Symphonie 제 8 번이 München 에서 초연되었을 때 그 연주회에 참석했으며, 연주회가 끝나고 나서 그와 자리를 함께 했었다.⁶³⁾ 그는 Lido 의 드넓은 바다를 보며 Mahler 의 죽음을 생각해 보았다. 바다, 그것은 영원과 허무와 죽음의 체험이며 형이 상학적인 꿈이다. 영원과 허무는 시간과 공간의 상실이며, 그것은 또한 피조물을 위태롭게 만드는 존재인 것이다.⁶⁴⁾ 이런 바다, 온갖 유혹과 화를 잉태하고 있는 Venedig, 그리고 예술가의 죽음, 이것은 Thomas Mann 의 창작 욕구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Thomas Mann 은 그때를 회상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Nicht zum erstenmal verbrachten wir, meine Frau und ich, einen Teil des Mai auf dem Lido. Eine Reihe kuriosester Umstände und Eindrücke mußte mit einem heimlichen Ausschauen nach neuen Dingen zusammenwirken, damit eine produktive Idee sich ergäbe, die dann unter dem Namen des ‘Tod in Venedig’ ihre Verwirklichung gefunden hat.”⁶⁵⁾

(우리들, 즉 나와 내 아내는, 5 월의 몇날을 Lido 에서 보낸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일련의 진기한 주위 환경과 기타 여러 인상들이 새로운 사물에 대한 은밀한 기대와 함께 작용하여 창작 의욕이 생겨났다. 그것은 「Der Tod in Venedig」라는 이름으로 실현을 보게된 것이다.)

그는 또 Gustav Mahler 의 죽음이 이 작품을 낳게한 사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uf der Insel Brioni, wo ich mich zur Zeit seines (Gustav Mahlers) Abschiedens aufhielt, verfolgte ich in der Wiener Presse die in fürstlichem Stile gehaltenen Bulletins über seine letzten Stunden, und indem sich später diese Erschütterungen mit den Eindrücken und Ideen vermischten, aus denen die

58) Hans Bürgin/Hans-Otto Mayer, a. a. O. S. 17

59) a. a. O. S. 23

60) a. a. O. S. 32

61) a. a. O. S. 37

62) a. a. O. S. 38

63) a. a. O. S. 37

64) Kurt Bräutigam: Thomas Mann, Tonio Kröger, München 1975, S. 54

65) zitiert nach Hans Bürgin/Hans-Otto Mayer a. a. O. S. 38

Novelle hervorging, gab ich meinem orgiastischer Auflösung verfallenen Helden nicht nur den Vornamen des großen Musikers, sondern verlieh ihm auch bei der Beschreibung seines Äußeren die Maske Mahlers."⁶⁶⁾

(Gustav Mahler 가 사망했을 때 나는 Brioni 섬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그의 최후의 순간에 관해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 애도한 Wien 신문의 보도를 읽었다. 이때의 감동이 나중에 여러 인상이나 생각과 결합이되어 Novelle 가 생겨났다. 나는 광적인 죽음을 맞는 내 주인공에게 이 위대한 음악가의 이름 (즉 Gustav)을 붙여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외모를 묘사하는데 Mahler의 용모를 빌려 썼던 것이다.)

Aschenbach에게서 두드러지게 묘사된 Thomas Mann의 자전적인 요소는 요컨대 그의 진지하고 철저한 예술가적인 면모에 있는 것이다.

IV. 결 언 (Beseelung)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Thomas Mann의 작품 속에 얼마나 많은 체험·사실과 자전적 요소가 담겨져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작품의 소재란 고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생활 주변에 무수히 주어져있는 것들이 모두 그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작품 속에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서술 속에서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도 타인에 관한 이야기와 구별하기가 힘든 때도 많이 있다.

“Nicht selten spricht er von sich, wo er von anderen spricht, und fast immer gleichen seine Essays über andere geheimen Selbstbildnissen. Freilich vermischt sich zuweilen auch hier das Eigene mit dem Fremden so sehr, daß sich die Grenzen zwischen dem Selbsterlebten und dem nur Dargestellten vollends verwischen.”⁶⁷⁾

(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때라도 자기에 관한 말을 자주한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쓴 Essay라 할지라도 자신의 은밀한 자화상과 거의 언제나 같다. 물론 여기서도 자신의 고유성이 남의 것과 너무 심하게 뒤섞여 있어서 자신의 체험과 묘사를 구분지워주는 경계가 사라져 버리고 만다.)

작가가 자신의 자전적인 요소를 작품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적인 전달과 나열에만 충실한다면 그것은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적을 것이다. Thomas Mann은 동일한 자신의 자전적 요소를

66) zitiert nach Helmut Jendriek: Thomas Mann, Der demokratische Roman, Düsseldorf 1977, S. 222

67) Helmut Koopmann: Die Entwicklung des intellektuellen Romans bei Thomas Mann, S. 9

가지고도 각기 다른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런데도 그 작품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 그때 마다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그의 **Beseelung**이라는 독특한 창작 기법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는 주어져 있는 무수한 소재 중에서 작가의 의도에 유용한 것만을 주어모아 결합시켜 작품화하는 것을 체험 사실의 주관적 심화라고 부르며 이런 과정을 일컬어 <영혼을 불어넣어 주는 것, 즉 **Beseelung**>이라고 했다.⁶⁸⁾ 그는 자신의 체험 사실이나 자전적 요소들을 다루는 과정에, 그것들에 생기를 불어넣어 자신의 정신이 깃들게 함으로써 즉 **Beseelung** 함으로써, 그들을 보다 차원 높은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Beseelung**이 되어진 것은 이미 현실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보편성과 객관성을 지닌 예술 작품인 것이다.

68) Vgl. a. a. O. S. 7

Literaturverzeichnis

1. Primärliteratur

- 1) Mann, Thomas: *Der Kleine Herr Friedemann*, in: *Die Erzählungen 1*, Frankfurt a. M. 1975
- 2) Mann, Thomas: *Tonio Kröger*, in: *Die Erzählungen 1*, Frankfurt a. M. 1975
- 3) Mann, Thomas: *Der Tod in Venedig*, in: *Die Erzählungen 1*, Frankfurt a. M. 1975

2. Sekundärliteratur

- 1) Koopmann, Helmut: *Die Entwicklung des intellektuellen Romans bei Thomas Mann*, Bonn 1980
- 2) Bürgin, Hans/Mayer, Hans-Otto: *Thomas Mann, Eine Chronik seines Lebens*, Frankfurt a. M. 1974
- 3) Schröter, Klaus: *Thomas Mann*, Reinbeck bei Hamburg 1964.
- 4) Mayer, Hans: *Thomas Mann*, Frankfurt a. M. 1980
- 5) Momsen, Katharina: *Gesellschaftskritik bei Fontane und Thomas Mann*, Heidelberg 1973.
- 6) A. Berendsohn, Walter: *Thomas Mann, Künstler und Kämpfer in bewegter Zeit*, Lübeck 1965
- 7) Koopmann, Helmut: *Thomas Mann, Konstanten seines literarischen Werks*, Göttingen 1975
- 8) Pütz, Peter (Hrsg.): *Thomas Mann und die Tradition*, Frankfurt a. M. 1971.
- 9) von Wiese, Benno: *Die Deutsche Novelle Bd. I*, Düsseldorf 1977
- 10) Bräutigam, Helmut: *Thomas Mann, Tonio Kröger*, München 1975
- 11) Jendreich, Helmut: *Thomas Mann, Der demokratische Roman*, Düsseldorf 1977

Zusammenfassung

Das Autobiographische in Th. Manns frühen Erzählungen

Lee Dae-ju

In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darum, in Th. Manns frühen Erzählungen (der kleine Herr Friedemann, Tonio Kröger und der Tod in Venedig) das Autobiographische zu betrachten. Mit dem Selbsterlebten und dem Autobiographischen schreibt Thomas Mann sein literarisches Werk sehr gern. Für ihn wird der Stoff nicht erfunden und ist weitgehend vorgegeben.

In [der kleine Herr Friedemann] sieht man das Bild von Th. Mann in der Kindheit, der sich im Garten mit dem Springbrunnen und dem alten Walnußbaum beschäftigt, die Geige spielt, auf die wundervolle Geschichte bei seiner Mutter lauscht und sich allmählich literarisch bildet. In [Tonio Kröger] ist Thomas Mann in der Jugend beschrieben. Er bemüht sich, dem Konflikt zwischen Kunst und Leben zu entgehen und die Synthese zu erreichen. [Der Tod in Venedig] zeigt uns Thomas Mann als einen vollendeten Dichter, der sich mit der strengen Selbstzucht nur dem Schaffen ergibt. In diesen drei Erzählungen ist das Thema vom Konflikt zwischen Künstler und Bürger mit dem einzelnen Äußeren behandelt.

Die wichtigen autobiographischen Elementen hier in den drei Erzählungen sind die verschiedenen Geschichten von Familie Mann, z. B. die Getreidefirma, die Blütezeit der Familie, der Tod der Großmutter und des Vaters, die Auflösung der Firma, der Verfall der Familie, die einander widersprechenden Wesenanlagen von seinen Eltern usw. Dazu können wir den Garten mit dem Springbrunnen und dem alten Walnußbaum, die Ostsee, das Schulleben und etwas Selbsterlebtes hinzufügen.

Mit seiner eigenartigen Darstellungstechnik macht er aber aus seinem Autobiographischen und seinem Selbsterlebten ein lebendiges Kunstwerk. Diese Technik nennt man 'die Beseelung'.